

4주차 (6월 27일)

■ 성도들의 선교적 삶

엘리트 선교의 지양, 타문화 지수의 향상, 교육, 참여

1. 실천이 있는 선교적 교회

Being Missional과 Doing Missions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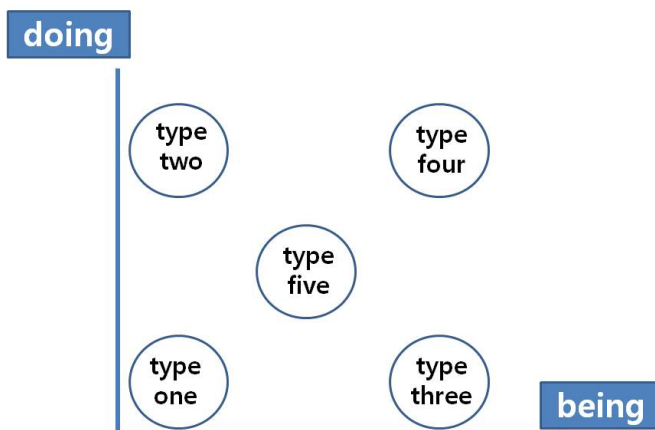
(교회와 선교 책에 나오는 어떤 교회 선교위원장의 이야기)

K 장로는 교회의 선교 부장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K 장로는 성가대 대장이기도 하다. K 장로는 직원이 30명인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최근에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인도 근로자들을 자기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인도사람들끼리 모여 교제를 하도록 성가대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 사람들이 성가대원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사용해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노발대발했다. K 장로는 평소에 손으로 음식을 먹고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는 인도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성가대원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사용했다고 해서 화가 난 것이다.

그런데 K 장로가 다음 주에 와서 인도 사람들에게 그 식판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 인도 사람들은 K 장로가 관점이 바뀐 줄 알고 좋아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운 식판을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

(1) 다섯 가지 타입의 교회 (손창남, 10분)



- Type one (잠자는 교회): 선교적 활동도 없고 체질도 되어 있지 않은 교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타입 one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 교회만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 Type two (내실이 부족한 교회): 선교적 활동은 많지만 체질은 되어 있지 않은 교회: 아마도 20%에 해당하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에 해당할 것이다.
- Type three (체질만 되어있는 교회): 체질은 상당히 되어 있지만 실천이 없는 교회: 많지 않겠지만 이런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다.
- Type four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선교적 교회: 로드맵이 지향하는 교회
- Type five (중간 단계):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선교적 교회로 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교회.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의 교회

2. 엘리트 선교의 탈피

-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
- 풀뿌리 선교의 재인식

3. 선교를 실천하는 여섯 가지 방법

OMF에서 사용하는 6가지 실천 방법(6 Practices of Mission)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목록이 있다.

(1) 가기 (Go)

(2) 보내기 (Send)

(3) 기도하기 (Pray)

(4) 동원하기 (Mobilize)

(5) 환영하기 (Welcome)

(6) 배우기 (Learn)

4. 단기선교여행

5. 선교교육과 훈련